



보도시점 5. 1.(금) 조간 < 4. 30.(목) 16:25 >

5대 금융그룹, 투·융자 자금 1조원 공급 등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동참

- 중기부·금융위,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벤처 투자 활성화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협력 본격화
- 5대 금융그룹은 민간 벤처모펀드 8,000억원 및 LP성장펀드 1,000억원 조성, 모두의 창업 협약보증 신설 1,500억원 등 지원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는 4월 30일(목) 팁스타운(서울 강남구)에서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창업기업 생태계와 연결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 중기부-금융위-5대 금융그룹-유관기관 업무협약식(MOU) 개요 >

- 일시·장소 : '26. 4. 30(목) 16:25, 팁스타운(S6) 1층 네트워킹 행사장
- 참석자
 - (정 부) 중기부 장관, 금융위 위원장
 - (금융그룹) KB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회장, NH농협금융그룹 회장
 - (유관기관)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창업진흥원 원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성장금융 대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 주요내용 : 벤처투자 활성화 및 모두의 창업 지원체계 발표, 업무협약 체결

이 날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시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대 금융그룹은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4,000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올해부터 1,000억원씩 총 4,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을 밝혀 민간 벤처모펀드의 확산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등 유인책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5대 금융그룹은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에 대한 출자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출자자(LP)성장펀드를 조성(하나·KB·신한·우리)한다. 또한, 지역 벤처생태계 저변 확충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로 지역성장펀드 출자에 참여(하나·NH농협)하는 등 벤처시장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한다.

나아가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유망 혁신기업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5대 금융그룹이 보유한 해외 법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설명회(IR) 및 후속 투자, 기업공개(IPO), 해외 진출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5대 금융그룹은 국가창업시대를 열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중기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한다. 5대 금융그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총 20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이를 토대로 기술보증기금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기술 트랙 지역 오디션 진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1,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한다. 특히 예비 창업가들이 겪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 재원 일부를 보증료 경감에 활용하여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 트랙의 지역 오디션 진출자 또한 이미 조성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1천억원, 국민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전국 오디션 진출자에게 추가 지원책을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그룹 전문가를 활용한 금융 멘토링 지원, 은행권 자체 멘토링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후속 지원, 계열 벤처캐피털(VC) 협력 등 금융 분야 성장 자원을 연계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갖춘 국민들이 폭넓게 모두의 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 앱을 통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셋째, 중기부와 금융위는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 첨단산업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 유망기업 발굴 등에 대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력산업 성장 등 지역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한 정책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과 국가창업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벤처 생태계와 5대 금융그룹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결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 체결의 의의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창업가·벤처기업·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금융”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5대 금융그룹과 유관기관이 협업을 약속하는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창업·벤처·성장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김연학 (044-204-7711)
	주무관		황준철 (044-204-7718)	
	창업벤처혁신실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현정 (044-204-7950)
		담당자	서기관	이현일 (044-204-7651)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김혜남 (044-204-7290)
		담당자	서기관	김기현 (044-204-785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효빈 (02-2100-2862)	